

투표참여의 동기변수와 시민교육

최연혁*

차 례

1. 들어가는 글
2. 투표참여의 결정요인
3. 스웨덴의 투표율 변화
4. 시민교육과 투표율
5.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투표율은 민주주의 연구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그동안 투표율의 결정요인이 무엇인가에 연구의 관심이 모아져 왔다. 2차대전 이후 지속적 경제발전과 안정적 민주주의 발전을 거듭해 오던 프랑스, 핀란드, 영국, 아일랜드, 그리고 1970년대 민주화한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 1980년대들어 의회선거에서 투표율이 60퍼센트 수준까지 떨어지고, 스위스의 경우 40퍼센트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대안에

* 스웨덴 쇠테르틴 대학 정치학과 교수

대한 다양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Bakvis 1991; Powell 2000; IDEA 2002 & 2004; Rose 1997; Jackman 1995; Blais & Carty 1990; Wolfinger 1993). 일본의 경우 1995년 중의원 선거에서 44.5퍼센트를 기록하는 등 2차대전 이후 최고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난후 60퍼센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99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57.2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최근 선거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며, 대만의 경우 한국보다 약간 높은 6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독립이후 큰 변화없이 60퍼센트의 수준을 줄곧 유지해 오고 있지만 역시 낮은 수준이다. 북남미의 미국과 멕시코가 1990년대 이후 4-60퍼센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IDEA Voter Turnout website, <http://www.idea.int/vt/index.cfm>).

투표율의 변화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젊은 유권자들의 대규모 선거이탈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유권자의 투표이탈현상을 민주주의의 중대한 위기로 인식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젊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이 부모세대보다 못하고, 민주시민 역량이나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 가치와 규범에 있어서도 이전세대에 비해 낮으며, 정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하락하고 있다. 이와함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빠르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McDoland 2001; Print 2007; Galston 2001:263; Delli Carpini 1996).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무엇이고, 특히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을 제고하기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투표율하락과 연관이 있는 변수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중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어떤 정치적 기반과 요소가 높은 투표율을 유지시켜왔는지, 그리고 최근 20년 동안 90퍼센트의 투표율에서 80퍼센트 수준으로 하락한 배경을 검토해 보고, 스웨덴의 시민교육제도와 시민교육기관들의 역할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관계를 가설적 논의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투표참여의 결정요인

투표참여율의 연구는 의무투표제의 도입,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적 측면 (Jackman 1987; Blais 1990; Dettrey 2009; Endersby & Jonathan 2008; Fisher 2009; Franklin 2004; Holbrooke 2001), 사회경제지표, 선거관리와 유권자 편의성(Kelly 1967) 등과 같은 거시적 측면의 연구와 함께 개인 투표성향에 대한 미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까지 동시에 진행되어왔다. 주로 투표율이 높은 나라일 경우 벨기에, 오스트리아 등 의무투표제를 채택하거나 의원내각제-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대통령제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적 접근방법은 투표율의 전반적인 하락현상을 설명하지 못기 때문에 결국 개인투표 성향과 유권자의 투표환경 연구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합리이론의 관점에서 출발한 유권자 투표참여의 원인을 보상과 비용의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아래의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표의 참여는 보상이 비용보다 크고 심리적 만족도가 높아 총보상이 클 때 참여한다는 것이다 (Downs 1957; Ferejohn & Fiorina, 1974; Riker & Ordeshook, 1968).

$$R = (B)(P) - C + D$$

(총보상 = (보상)(선거결과에 대한 인식) - 투표비용 + 심리적 만족도

또 다른 방법으로 투표의 참여의 개연성을 연구한 하더와 크로스닉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동기부여와 투표를 수행할 능력을 제약으로 나누었을 때 산출된 값이 개연성의 정도라는 것이다. 즉 이를 공식화 보면 다음과 같다.

$$\text{투표개연성} = (\text{투표동기} \times \text{투표능력}) / \text{투표의 제약}(\text{Harder and Krosnick 2008:527})$$

투표동기는 후보선호도, 민주시민의 책임성, 가족, 친구 등의 투표에 대한 압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심리적 영향, 투표능력은 선거전의 정치상황 인식과 후보자들의 정보취합 등의 능력(Gant, 1983; Panning, 1982, McNulty, 2004; Gimpel & Schuknecht, 2003), 그리고 투표의 제약은 유권자 등록(Kelley, Ayres, & Bowen 1967; Kim, Petrocik, & Enokson 1975; Mitchell & Wlezien 1995; Nagler, 1991; Wolfinger & Rosenstone, 1980), 선거당일 투표장까지의 접근거리 및 방법의 수월성 (Caldeira, Patterson, & Markko 1985; Wolfinger & Rosenstone 1980; Gimpel & Schuknecht 2003), 기표시의 복잡성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광의의 개념이다.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는 행위는 결국 후보의 선호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 주위 사람들의 종합적 영향을 총 망라하는 사회심리적 요인과 함께 정보를 취합해 투표를 위한 긍정적 판단 그리고 여러가지 제약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 요소를 뛰어넘는 값이 되면 개연성은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후보의 선호도가 매우 높거나,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율이 높아지고, 선호하는 후보가 없고, 정치적 관심이 낮거나 교육수준이 낮아 후보자 정보취합에 소극적일 경우, 혹은 선거관리제도가 복잡해 유권자가 참여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 투표에서 기권을 할 확율은 그만큼 높아진다.

교육이 높을수록 투표참여가 높다는 것은 국제비교연구에서 꾸준히 입증되고 있다 (Pacheco & Plutzer, 2008; Shields & Goidel, 1997; Teixeira, 1992; Tenn, 2007; Verba, Schlozman, & Brady, 1995). 교육환경적 요소도 중요한 투표요인으로 부각된다. 즉 주위 이웃보다 교육수준이 높을 때 투표참여율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Helliwell 2007; Nie, Junn, & Stehlik-Barry, 1996). 이는 주위사람들에 비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성이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고, 주위사람들의 모범적 롤모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육수준의 일반적 가설을 뒷바침하는 가설로 성립될 수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투표에 참가할 확율은 높아진다 (Filer, Kenny, & Morton, 1993; Leighley & Nagler, 1992b; Rosenstone & Hansen, 1993). 이는 소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책기대에 대한 심리

가 높고 투표행위의 보상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로센스톤과 한센의 주장이다 (Rosenstone & Hansen, 1993). 투표와 직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무원 (Bennett & Orzechowski, 1983; Corey & Garand, 2002; Wolfinger & Rosenstone, 1980)의 투표율이 높고, 노조조직율이 80퍼센트에까지 이르는 스웨덴의 경우 적극적으로 노조활동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율이 매우 높고, 노동자들의 투표율이 결과적으로 선거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Oskarsson 1998). 2006년 스웨덴의 총선거에서 노동자들의 투표이탈이 결과적으로 2%내외의 근소한 차이로 우익에게 정권을 내준 결과를 맺는 경우와 같이 선거의 승리와 패배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나이와 관계된 투표율은 30대이전까지 75세 이후의 연령층에서 낮은 투표율이 발견된다(Strate, Parrish, Elder, & Ford, 1989; Turner, Shields, & Sharpe, 2001). 그 이유는 나이 어린 유권자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고, 정치에 관한 정보획득에 관심이 없으며 선거정보수집을 소홀히 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결여된다는 점으로 인해 선거이전에 투표참여를 포기하거나, 잠정적으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도 실제로 행위로 옮길 의지가 매우 낮다. 그 투표비용이 기대수치보다 낮아 투표참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합리적 가설이 성립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회의 정보습득 비용이 적게 들고 경제의 안정이 정치적 관심을 유발하게되며 참여를통해 변화에 대한 욕구가 팽배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격동기, 중대한 선거가 있는 시기에는 나이와 관계없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가 높다 (Beck & Jennings, 1979; Jankowski & Strate, 1995; Lyons & Alexander, 2000; Miller, 1992a; Miller & Shanks, 1996; Rosenstone & Hansen, 1993).

여성과 남성간의 투표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남성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여주지만 최근들어서는 서구의 경우 여성유권자들이 역으로 약간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 그 이유로 여성의 사회참여 빈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에 대한 관심과 가족의 복지, 여성의 여권확대에 대한 욕구 등이 작용하면서 참여에 적극적이 된다는 것이 경험연구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공공부분

의 확대로 인해 여성이 적극적 사회서비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정책 및 가족정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여성의 표를 대변하는 정당이 존재할 때 여성의 정치참여와 투표참여는 극대화된다 (Schlozman, Burns, & Verba, 1999; Verba, Burns, & Schlozman, 1997; Leighley & Nagler, 1992a; Schlozman, Burns, Verba, & Donahue, 1995).

인구학적 특성으로 이사를 자주하는 사람일수록 투표율이 낮고 (Highton, 2000; Miller, 1992b; Squire, Wolfinger, & Glass, 1987), 도시보다는 농촌유권자가 투표참여에 적극적이며 (Wolfinger & Rosenstone, 1980; Wright, 1976), 이민자 그룹보다 내국인 출신의 유권자가 투표에 적극적이지만 (Matthews & Prothro, 1966; Uhlaner, Cain, & Kiewiet, 1989) 교육열이 높은 이민자 가족의 경우 이같은 모형은 약화된다(Bobo & Gilliam, 1990; Brace, Handley, Niemi, & Stanley, 1995; Leighley & Vedlitz, 1999; Wolfinger & Rosenstone, 1980). 이들의 정치적 무관심보다는 사회에서의 소외감과 직업 및 사회생활의 차별에 따른 불만족, 사회의 이방인 취급 등으로 인해 참여에 무관심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회심리학적 요소로 이웃주민들의 정치의식수준이 높을 때 투표에 대한 적극성이 눈에 띄게 확인되고 (Huckfeldt, 1979), 이와함께 거주지역 주민들의 동일 정당소속감이 높을수록 특정정당의 지지자로 적극 투표에 참여하며 (Gimpel, Dyck, & Shaw, 2004), 독신자들보다는 결혼한 유권자들이 투표에 적극적이고 (Kingston & Finkel, 1987; Petrocik & Shaw, 1991; cf. Stoker & Jennings, 1995), 나이효과에 있어서도 젊었을 때 결혼한 사람일수록 투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한 사람일수록 투표에 적극적이라는 연구가 이를 뒷바침하고 있다(Sandell & Plutzer, 2005)

시민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일수록 일반적 정치적 관심과 정치참여에 적극적이라는 퍼트남 (Putnam 1993 & 2000)의 이론은 민주적 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지식이 높고 (Tate, 1991; Verba et al., 1995), 사회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아 참여의 유발성이 높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는 가설에 기초하고 있다 (Cox, 2003; Holbrook, Krosnick,

Visser, Gardner, & Cacioppo, 2001; Timpone, 1998). 그러나 정부에 대한 신뢰도의 최근들어 상당히 저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evi & Stoker, 2000; Miller, 1980, 직접적으로 투표율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은 부정되어 왔으며 그 이유로 개인의 사회, 경제, 문화적 변수가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Hetherington, 1999; Schaffer, 1981; Wolfinger, Glass, & Squire, 1990). 그러나 시민사회와 상호신뢰에 대한 비례적 관계는 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국가일수록 희박해진다는 가설이 일반적인 설명력을 갖추고 있다. 즉 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스웨덴의 경우 국가의 복지제도의 구체적 성격인 실업수당, 사회연금 등의 혜택을 보는 사람일수록 이웃 등 사회구성원의 신뢰가 낮고, 사회적 관용도도 저하되며 투표율도 낮아진다는 것이다(Rothstein 2001; Rothstein & Ulsander 2005).

참여를 통해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믿음, 즉 정치적 효능감은 정치참여의 중요한 척도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Acock, Clarke, & Stewart, 1985; Craig & Maggiotto, 1982). 이 효능감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정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관심, 그리고 정치제도의 상응성, 즉 정치제도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적절한 조치와 해결책의 제시를 할 것이라는 믿음체계가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요소로서 정치참여의 중요한 동기유발에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Abramson & Aldrich, 1982; Rosenstone & Hansen, 1993). 따라서 투표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책임정당, 정책정당, 그리고 다양한 국민과의 소통채널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간의 단체소속감과 공동의식, 그리고 일체감이 높을수록 투표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다수 사회구성원들이 추구하는 이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Miller, Gurin, Gurin, & Malanchuk, 1981; Tolleson-Rinehart, 1992). 특히 사회적 약자가 단결해 구성하는 여성단체, 소수민족단체, 노동단체 등의 결사체가 많은 나라일수록 참여의 강도가 세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유럽연합 신가입국들의 경우 경제발전과 정치부패 등의 요인이 투표율에 영향(Fauvelle-Aymar & Stegmaier 2008)을 미친다는 가설이다. 즉 새로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된 폴란드, 헝거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아직 정치인들의 부패가 미디어를 장식하고,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와 정치적 불신은 민주적 절차로서의 선거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투표율을 기피하는 경향이 높다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저성장, 물가상승, 고실업 등으로 인해 정당과 정치인의 무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악화될 때 투표율은 하락한다는 점에서 정치의 효율성과 생산성은 투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투표율의 저하는 국가경제의 침체에 극적으로 발생하며 양극화의 고착화는 투표율의 상승에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Galbraith and Hale 2008).

투표참여를 유발하는 또 다른 요소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들 수 있다(Nagler 1991). 즉 투표를 통한 한표의 행사가 대의민주주의의 생존에 필수요소라는 인식과 책임감이 참여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점차 고착되어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시민의식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투표율의 저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단지 의무라는 점을 호소하기 보다는 민주국가에서의 반복되는 정치적 습관(Political habits)으로 한번 투표하게 되면 지속적 참여하게 되는 순환적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Pulzer 2002).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젊었을 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일수록 투표는 마치 습관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 처럼 지속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성향이 있고, 이전 선거에서 참가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 참가할 확률도 높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Gerber, Green, & Shachar, 2003; Verba & Nie, 1972). 즉 투표참여의 탄력적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Goldstein & Ridout, 2002; La Due Lake & Huckfeldt, 1998). 역으로 해석하면 이전 선거에서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선거에서 투표하지 않을 확률적 통계치는 13%나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Denny 2009). 즉 선거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유인책이나, 투표장의 접근용이성, 투표용이성 등도 중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이유다.

정당 선거운동의 성격, 그리고 비판적, 공격적 정치광고 등이 유권자의 투표결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반대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부정적 선거운동이 유권자들의 정치협오를 증폭시켜 참여의 동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이론과 (Ansolabehere & Iyengar, 1995; Min, 2004), 반대로 정치적 관심을 증폭시켜 투표참여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론 (Freedman & Goldstein, 1999; Goldstein & Freedman, 2002; Wattenberg & Briens, 1999), 마지막으로 긍정과 부정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쇄되어 투표참여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중립적 이론 등 다양하다 (Clinton & Lapinski, 2004; Lau & Pomper, 2001; Martin, 2004). 따라서 정당들의 부정적, 공격적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거경쟁이 매우 높아 누가 승리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끄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선거이전에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큰 차이의 승부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승자가 거의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패자를 지원하는 유권자의 동기부여가 쉽지않다는 가설이다(Matsusaka, 1993; Patterson & Caldeira, 1983; Shachar & Nalebuff, 1999). 따라서 선거의 승리를 점칠 수 없는 경쟁상황일수록 정당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선거비용이 높게 들게 될수록 더욱 결과를 어렵게 만드는 순환적 구조를 갖고 있다(Cox & Munger, 1989; Shachar & Nalebuff, 1999). 그러나 양자구도에서의 박빙의 승부는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당구조 하에서의 정당경쟁 구도가 한 정당의 일방적 승리를 점칠 수 없고, 과반수의 획득에 항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당차원에서 정당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등으로 중대선거구 하에서의 비례대표제, 그리고 다당제가 투표율의 제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Choe 2004; Crewe 1981; Enderby 2008; Franklin 1996).

일반적으로 기존정당의 예상된 후보간의 선거에서보다는 다크호스로 등장한 후보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92년 미국대통령선거에서 Ross Perot가 등장해 상당한 유권자의 관심을 유발한 경우, 2002년 결선투표까지 오른 르팽(Jean-Marie Le Pen) 민족전선 후보의 등장으로 극우세력을 자극해 투표참여가 높아진 예, 그리고 2008년 미국 민주당후보인 오바마(Barack Obama) 후보가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 후보를 제치고 대통령선거에 임하면서, 전통적으로 투표에 소극적이었던 흑인들의 대대적인 참여 등 기존의 선거와 다른 양상일 경우 새로운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이 있다는 가설(Lacy & Burden, 1999; Campbell, 1960; Cover, 1985)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같이 예상치 못한 후보가 등장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1인선거구의 양당제도 혹은 대통령제에서나 가능하고, 중대선거구의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함께 영미식의 전통방식인 문지방선거운동(Canvassing)이 선거운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Gerber & Green, 2000a, 2005; Green & Gerber, 2004; Green, Gerber, & Nickerson, 2003; Michelson, 2003) 이 제도는 선거운동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의 투표율이 최근 들어 대폭 낮아진 점,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타락선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신체적 장애 (Schur & Kruse, 2000; Schur, Shields, Kruse, & Schriener, 2002)가 있는 경우 투표참여에 제약이 있어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가설이다. 이는 장애인 유권자들의 투표제약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면 많이 줄어 들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관리기관의 세심한 관심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즉 휠체어를 탄 유권자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넓은 공공장소를 택함과 동시에 턱없는 입구설치를 의무화하고, 점자 투표용지 등의 배치,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의 편의성 제공,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유권자를 위해 그림 등 쉬운 언어로 만든 선거안내책자, 소수 민족의 경우 소수 민족 언어로 만든 선거정보 등을 만들어 인터넷이나, 가정에

우편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IDEA 2002:103).

부재자 투표의 편리성과 접근성은 투표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Berinsky, Burns, & Traugott, 2001; Karp & Banducci, 2000). 이는 투표당일 가정, 직장, 개인적인 이유로 투표에 참가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에게 투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최소한 3-5%, 높게는 8-10%의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재자 투표의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 도입한 부재자 투표를 이용한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부재자 투표의 일시적, 순간적 결정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Choe 1997).

3. 스웨덴의 투표율 변화

선거의 역사적, 정치적 의미부여가 투표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루제웬스키(Przeworski 2009)의 가설에서 나타나듯이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선거가 얼마만큼 사회적 아젠다 설정과 분배 및 사회개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투표율도 상당부분 영향을 받는다. 스웨덴의 선거는 1920년에 처음 보통선거권에 의한 여성유권자의 투표참여로 실질적인 민주주의 선거에 들어선 이후, 50퍼센트 수준에서 70퍼센트 수준으로 상승된 것은 2차대전이후 사민당의 지속적 통치와 복지제도의 확대를 통한 공공부분의 확장, 사회배분과 평등적 가치의 실현 등을 통해 극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계속 양산되면서 유권자들을 분배와 발전, 평등과 책임, 세금인상과 인하 등의 민주적 가치의 대립과 경쟁을 통한 중대한 선거가 지속되면서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원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가 점차 확대되어 전체 여성의 70퍼센트 수준에 이르는 60년대에는 이미 투표율이 80센트 수준으로 꾸준히 상승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후 70년대의 임노동기금을 둘러싼 좌우논쟁, 세금논쟁, 80년대의 노동자-자본간의 투쟁 등은 의무투표제가 없는 선거에서 투표율 90퍼센트 수준을 유지하게

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표 1. 스웨덴 역대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 투표율

	의회	광역자치 (Landsting)	기초자치 (Commun)	EU
2006	82,0	78,8	79,4	45,5
2002	80,1	77,5	77,9	37,9
1998	81,4	78,1	78,6	38,8
1994	86,8	84,3	84,4	41,6
1991	86,7	84,0	84,3	
1988	86,0	84,2	84,0	
1985	89,9	88,0	87,8	
1982	91,4	89,8	89,6	
1979	90,7	89,2	89,0	
1976	91,8	90,5	90,3	
1973	90,8	90,7	90,5	
1970	88,3	88,2	88,1	
1968	89,3	82,8		
1964	83,9	81,0		
1960	85,9	79,2		
1958	77,4	79,1		
1956	79,8	80,5		
1952	79,1	72,0		
1948	82,7	66,8		
1944	71,9	66,0		
1940	70,3	63,6		
1936	74,5	58,2		
1932	67,6	49,8		
1928	67,4	38,2		
1924	53,0			
1921	54,2			
1920	55,3	63,3		

참조: 1970년 이후 3개 선거 투표는 동일해 실시됨. 각 선거의 기표지는 색깔에 따라 구분됨. 의회선거는 노란색, 광역선거는 파란색,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선거는 하얀색으로 구분.

70년대 내내 90퍼센트 수준을 유지했던 투표율의 변화조짐이 일기시작한 것이 바로 80년대를 거치면서 사민당의 권좌 재복귀와 유가파동을 통한 경제의 침체, 세금인상, 유동성위기, 대량실업 등을 경험하면서 스웨덴의 투표율은 더이상 90퍼센트가 아닌 80퍼센트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투표율의 황금기는 지고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90퍼센트 수준에서 80퍼센트 중반으로 떨어지는 1988년 선거가 중대한 분수령이었다는 점에서 1988년 선거 당시의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988년 선거는 1986년 사민당 정권하의 수상이었던 팔메(Olof Palme) 수상이 암살된 이후 국가적 충격과 위기상황을 새 수상인 칼손(Ingvar Carlsson)하에서 체제안정과 2-3퍼센트의 실업율,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오고 있었다는 점에서 1988년의 투표율 하락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1988년의 신문지상을 장식했던 몇가지 스캔들은 스웨덴의 정치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일명 에베칼손 스캔들(Ebbe Carlsson)은 팔메수상의 저격범 수사에 당시 법무부 장관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에베칼손의 개입을 목인한 결과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경찰청장의 경질, 그리고 뒤이은 법무부 장관의 사임 등을 이끈 초유의 사태로 발전되면서 스웨덴 현대정치사에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가져오는 오점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시 전국노조위원장 딸이 자신이 이사회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국가임대주택 회사로부터 얻기 힘든 아파트를 부당하게 임대해준 사실이 타블로이드 신문에 의해 파헤쳐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곱지않던 국민들의 정치불신에 기름을 붙는 격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사민당 유력 인사들의 권력남용은 그대로 투표율의 하락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신홍 민주주의국가들의 정치부패와 정치인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체제불신이었다는 점에서 3-4퍼센트의 유권자 이탈은 불가피했다는 측면이 있다.

스웨덴의 투표율 분석의 특징은 동시선거가 실시된 1970년 이후 광역자치인 란스팅과 기초단체인 커문선거에서도 의회선거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시선거가 가장 중요한 설명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의회 투표율에 있어서는 40퍼센트 내외의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타 다른 유럽연합국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투표율을 보이는 것은 높은 의회투표율과 비교해

볼 때 그만큼 유럽의회 선거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허부리그 선거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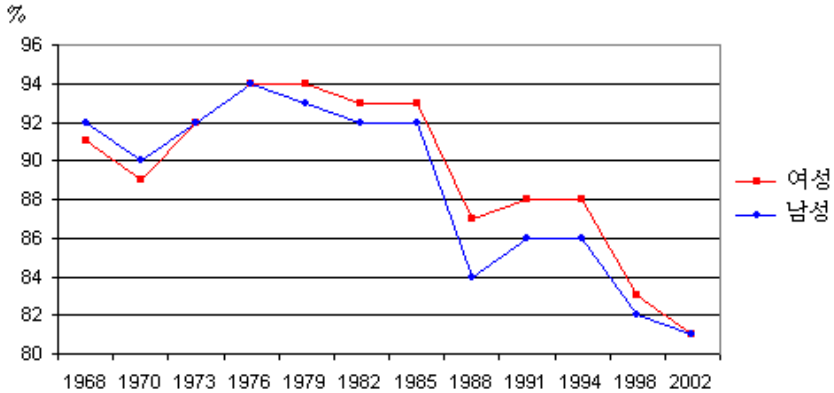
스웨덴의 투표분석에서 발견되는 특징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투표율에서 평균 2퍼센트, 많게는 3퍼센트 정도 앞서고 있다는 점이다. 1976년 선거 이후 줄곧 스웨덴 여성 유권자의 참여가 남성보다 앞서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어 왔다. 1988년 선거의 경우 3퍼센트의 차이가 날 정도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그 설명적 변수로 여성의 높은 사회참여 수준, 여성의원비율 등 여성 정치참여수준이 높다는 정치경제적 요소와, 성평등이 사회전반에 걸쳐 확대되어 있고, 남성에 비해 인도주의 및 국제원조 시민사회 등에 자발적 참여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²⁾ 그러나 이같은 특징은 1994년 선거이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02년 선거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역으로 설명하면 여성의 투표율은 1994년 이후 약간 더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투표 참여가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1994년을 전후한 정치경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4년 선거에서 다시 권좌에 복귀한 사민당 정권은 우익보수정권의 세득세 인하로 인해 발생한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행된 복지제도의 축소를 통해 기초의료시설, 학교, 탁아소, 양로원 등의 대대적 구조조정과 감원을 단행한 결과 주로 일자리를 잃었던 사람들은 바로 여성유권자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여성의 높은 실업율로 인한 체제에 대한 불만 등을 이탈 원인으로 들 수가 있다.

1) 스웨덴의 유럽의회 투표율은 동구유럽 국가들이 가입하기 이전까지 영국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2009년 EU 가입국 평균 투표율은 43퍼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직접선거를 시작한 1979년 62퍼센트보다 무려 19퍼센트가 하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폴란드(24.5), 슬로바키아(19.6), 루마니아(27.7) 등 동구유럽국가들의 가입이후 급격히 평균투표율이 떨어지는 상황이었다.

2) 여성의 시민사회 참여비율 등은

<http://www.sektor3.se/wp-content/uploads/2010/02/Sektor-33.pdf>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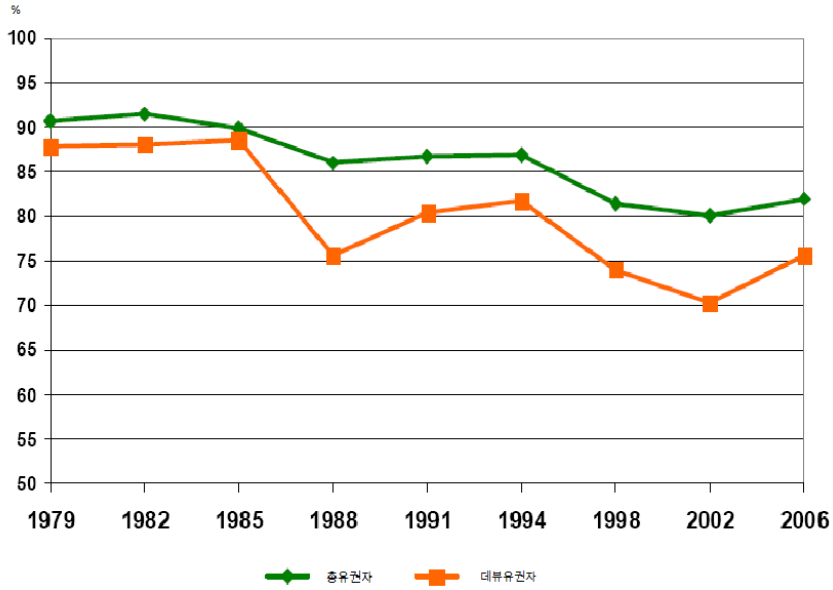
그림 1. 스웨덴의 성별 투표율 변화



출처: Örval 2009.

스웨덴 유권자 분석의 또 다른 특징으로 데뷔유권자의 투표율 변화를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 젊은 유권자들의 이탈이 투표율 저하의 중요한 설명변수로 지적된 이후 데뷔유권자들의 투표성향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Pachelo & Pulzer 2008; John 2004; Lopez 2004; Pulzer 2002; Tagore & Sen 2009). 스웨덴의 경우 데뷔유권자의 이탈이 눈에 띄게 목격되는 것은 1988년 선거로 전체 유권자와 무려 10퍼센트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 이전까지 투표율에 있어서 총유권자 대비 2-3퍼센트의 근소한 차이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1988년부터 현저하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간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총유권자의 투표율 대비 6-8퍼센트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 젊은유권자들의 투표율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띄고 있는지 그림 3으로 설명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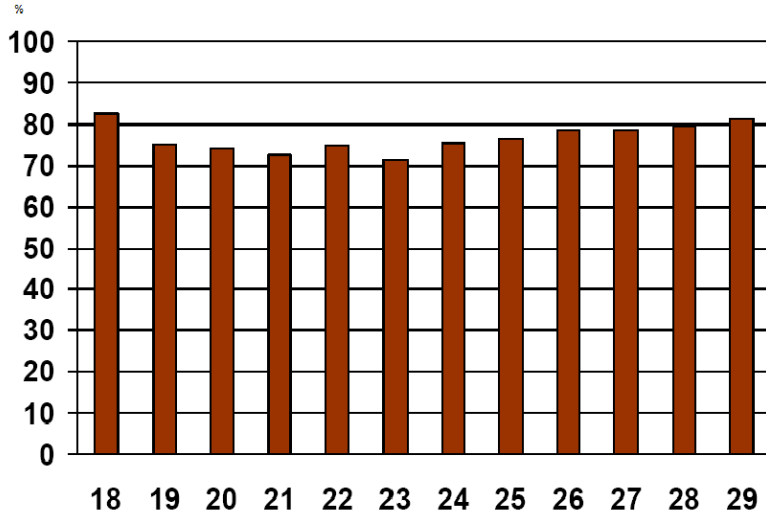
그림 2. 스웨덴 총유권자와 데뷔유권자의 투표율 변화추이 (1979-2006)



출처: Örval 2009.

2006년 선거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18세의 데뷔투표자들은 첫번째 투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성인유권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같은 비슷한 투표율의 수준을 보여준다. 그러나 19세부터 20대 중반까지는 일반유권자들과 5-8퍼센트의 차이로 투표율이 낮게 나타나며 20대 말의 청년들을 보면 다시 투표율이 성인그룹에 근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년유권자의 투표참여 여부는 여러가지 요인중에서도 실업여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년의 경우 투표에 참여할 확율이 높다는 경험적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Fauvelle-Aymar & Stegmaier 2008) 스웨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듯 하다. 스웨덴의 청년실업율은 2009년 기준 26.4퍼센트로 유럽의 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높은 편에 속한다 (Ekonomifakta). 청년유권자들의 투표이탈은 결국 전체 투표율의 1-2퍼센트의 하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표 3. 18-29세의 투표율 (2006년 총선거)



2006년 선거 당시 12월 31일 기준의 연령

출처: Örval 2009.

요약해 보면 최근 들어 스웨덴에서 투표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주된 원인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실업율의 증가, 복지제도의 축소 등 사회 경제적 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련의 정치적 스캔달을 목격한 국민들의 정치적 불신의 증가도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투표율이 비교적 안정적인 80퍼센트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여타 다른 변수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민주시민 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중요한 시민교육의 의미와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4. 시민교육과 투표율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 그리고 자발적 참여의 수준이 높은 사회일수록 정치에 대한 관심과 민주주의 감시체제가 구축되어 유권자들은 선거에 참여해 정치를 견제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다는 논의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Dahl 1998: 37-38; Denver & Hands 1990; Jenssen 2009; Larcinese 2009; Mendelsonh 2000). 민주주의 지식은 자유, 평등, 책임, 의무, 민주주의 가치, 규범에 대한 포괄적 지식을 내포하며, 높은 정치지식이 민주시민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높은 민주주의 지식과 시민의식은 민주주의의 게임의 규칙을 따르게 하고,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의 책임을 강조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지속적 발전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McAllister 1998; Björklund, Edin & Kreuger 2004).

시민교육을 통한 유권자의 정치의식변화, 정치정보에 대한 이해와 투표 책임감 등에 관한 연구는 핀켈(Finkel 2005)의 남아공과 도미니카공화국 연구에서 잘 나타나 있다. 즉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학습효과는 체계적인 시민교육프로그램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핀켈의 주장은 스웨덴의 정치발전과 높은 투표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갈스톤 (Galston 2001)도 정치지식은 정치참여를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민교육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다고 하는 적극적 시민교육 예찬론자이다.

4.1. 스웨덴 시민교육기관의 구성

스웨덴의 시민교육기관의 특징으로 민간 사회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성장하여 왔다는 점이다. 스웨덴 시민교육기관의 경우 두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째, 학습동아리단체(Studiesförbund, Association for Circle Studies)로서 전국적으로 9개의 중앙단체 산하에 318개의 지방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둘째, 전국에 걸쳐 150개의 고등성인교육학교인 폴크웁스콜라(Folkhögskola)가 조직되어 있다.

9개의 학습동아리단체 중에서도 정치, 사상적 배경으로 태동한 ABF, Medborgarskolan, SV, NBV 등은 가장 대표적 민간시민교육단체로 꼽힌다. ABF는 1912년 사민당, 소비자단체(KF), 그리고 노조(LO)와 연계해 노동자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태동했으며 점차 정치사상적 색깔을 배제하고, 현재 국민교육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메드보리아르 스콜란(Medborgarskolan)의 경우도 1940년 보수당의 교육기관으로 태동했지만 현재는 정당과 관계없이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SV도 위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도우파인 농민당(현재 중앙당)과 국민당이 공동으로 1967년 조직했지만, 현재 정당의 색채는 전혀 없고 시민교육기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정치적 색깔을 띤 학습동아리로 출발했지만 3개 기관 모두 정치색을 배제하고 교양, 문화, 체육, 예술 등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금과 학습참여자의 참가비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³⁾

학습동아리단체의 두번째 그룹은 종교적 신념의 실천과 전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ilda, Sensus, Ibn Rushd가 이에 속하며 교회안에서 문화, 예술, 인도적 지원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지만 시민의 속에 들어가 활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세번째로 사회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의식개혁을 목표로 세워진 NBV와 Studieförbundet을 들 수 있다. 두 단체는 1900년대초에 전개되었던 금주절제운동과 4H농촌운동의 정신을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설립된 이후 최근들어라도 계속 새롭게 활동영역을 넓혀가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마지막 부류로 순수 교육을 목적으로 대학교육 수준의 일반인 교육을 지향하는 Folkuniversitet을 들 수 있다. 설립된 이후 줄곧 언어교육에 특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학, 미학, 그리고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Folkuniversitet은 위에서 언급한 8개

3) 상세한 것은 시민교육위원회의 웹사이트(www.folkbildningsradet.se)를 참조.

의 학습동아리라는 차원보다는 고급교육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표 2. 스웨덴 시민교육기관의 구분

	설립 연도	설립배경	활동영역	최근 연계조직
ABF	1912	노동자 교육	교육, 세미나, 문화활동	사회약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단체들의 합류
Medborgarskolan	1940	보수적 가치를 앞세운 사회개혁운동	교육, 문화, 세미나	청년, 정년퇴직 단체 가입
SV	1967	농민당, 국민당의 정치운동	농민교육, 도시자영업자	HOMO,Bi-sexual 단체, 각종 자유사상을 신봉하는 소수이민족단체 합류
Bilda	1947	국가종교의 틀에서 벗어난 자유교회운동과 시민교육	종교교육	필라델피아교회운동, 그리스정교회운동 등의 자유교회운동세력 합류
Sensus	1930	국가종교교리에 입각한 시민교육	종교교육	기독교주의에 입각한 인도주의적 지원단체들의 합류
Ibn Rushd	2001	이슬람운동	이슬람에 입각한 교육	이슬람청소년운동, 이슬람스카웃 단체 등의 가입
Studieförbundet	1947	4H 운동의 전개와 실천	농촌현대화를 위한 교육	자연보호, 환경단체들의 합류
NBV	1971	금주절제운동의 실천	사회개혁교육	시민의식개혁실천 단체 및 토요 학교, 문화학교 등이 가입
Folkuniversitet	1933	대학생들이 조직한 시민교육기관	언어교육특화 및 미학교육	전국적으로 단일 조직을 운영함

출처: von Essen, Johan och Pelle Aberg 2009, 38-54쪽

시민교육단체인 9개 학습동아리의 활동은 주로 본래 취지의 학습씨클모임이 주를 이루며, 문화행사, 각종교육활동을 고루 포함하고 있다. 가장 큰 조직은 ABF로 총행사의 수는 15만개에 이를 정도로 다양한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SV와 Medborgarskolan이 뒤를 잇고 있다. 종교교육 활동조직으로는 Sensus가 Bilda에 비해 앞서고 있으며 스웨덴국가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H운동으로 시작한 Studieförbundet은 전국적으로 8만2천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주 활동무대는 여전히 소도시와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 뒤를 NBV가 뒤를 잇고 있으며 토요학교, 문화교실 등 학교지원을 통한 시민교육활동에서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11565개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표 3. 전국단위 대표적 학습동아리의 활동 (2007)

	학습동아리	문화행사	시민교육활동	합계
ABF	84482	61588	8762	154832
Medborgarskolan	29269	20217	4519	54005
SV	54 403	29025	5985	89413
Bilda	10826	28144	5948	44918
Sensus	20324	39379	8071	67774
Ibn Rushd*				
Studieförbundet	42729	34590	5570	82889
NBV	24355	14977	11565	50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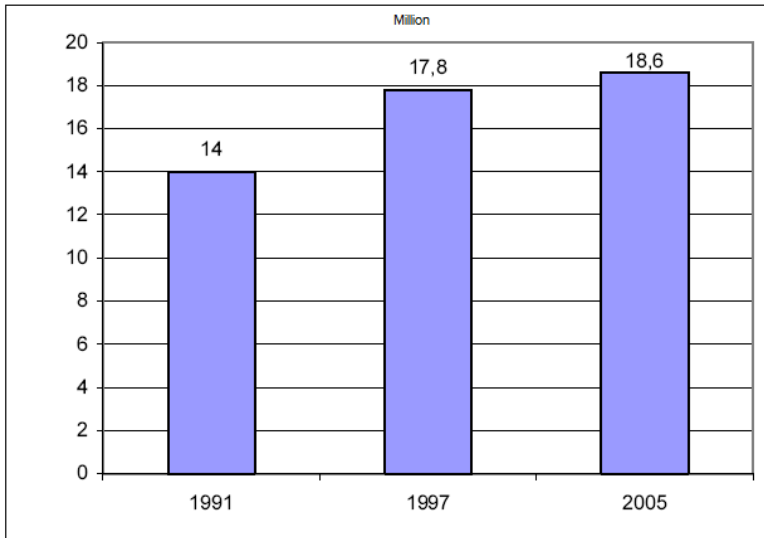
출처: von Essen, Johan och Pelle Aberg 2009, 52쪽

* Ibn Rushd는 2008년부터 독립 단체로 분리되어 활동보고서가 제출되지 못했다.

스웨덴의 16세-29세의 청년의 경우 1개 이상의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40퍼센트에 이르고, 75세까지의 성인의 경우 90퍼센트까지 이르고 있다 (SOU 2004:51, 29쪽). 시민사회 참여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연구한 Sörbom (2002)은 스웨덴 국민들, 특히 젊은 청년들의 특징을 변화에 대한 갈망과 사회를 적극적으로 개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 적극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는 진단을 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논의의 동일 선상에서 스웨덴국민의 또 다른 특징으로 스웨덴 국민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아래의 그림 3에서 나타나 있듯이 스웨덴 국민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가 전국조직

을 갖춘 9개의 시민교육단체가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같은 프로그램은 다양한 세미나, 토론, 문화, 체육, 예술, 여가 학습동아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그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⁴⁾

그림 3. 스웨덴 시민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1991-2005)



출처: Regeringens proposition 2005/06:192 Lära, växa, förändra. 10쪽.

시민교육기관의 가장 중요한 활동에 속하는 동아리에 참가하는 주민을 해당 지역의 전체 거주자와의 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스웨덴 시민교육의 중요한 특징을 확인하게 된다. 아래 표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전국 평균수준은 10퍼센트에 달하고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역은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북쪽지역인 Västerbotten, Norrbotten 지역으로 각각 14%, 12%의 지역주민이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대도시 지역인 스톡홀름, 제2도시인 외테보리

4) 2006 (201만), 2007 (202만), 2008 (190만)으로 200만시대를 거친후 2008년 기준 190만명에 이르고 있다. 참여자들의 특징을 보면, 여성이 6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성지배현상이 강하다 (Folkbildningsrådet 2008, 25쪽).

(Göteborg)가 있는 베스트라 요타란드 (Västra Götaland), 제3의 도시 말뫼 (Malmö)가 있는 스코네(Skåne)지역은 각각 거주 주민의 6%, 7%, 9%만이 참가해 시골지역보다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있다. 이는 단적으로 사람들이 모여 토론하고 함께 공부하는 방식을 시골사람들이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대도시 사람들은 일회성 강연, 세미나 등의 행사, 시민교육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고 하겠다.

표 4. 전국지방별 학습동아리의 참여자수 (2008)

Län (도)	%	인구	참여자
Blekinge	9	151900	13700
Dalarna	8	275600	23 300
Gotland	11	57100	6 400
Gävleborg	11	275 600	29 900
Halland	9	291 400	25 300
Jämtland	9	126 900	11 400
Jönköping	9	333 600	29 200
Kalmar	9	233 800	21 500
Kronoberg	10	180 800	18 200
Norrbottn	12	250 600	29 500
Skåne	7	1 199 400	87 400
Stockholm	6	1 949 500	111 500
Södermanland	8	265 200	22 300
Uppsala	7	323 300	23 300
Värmland	9	273 800	24 800
Västerbotten	14	257 600	36 200
Västernorrland	9	243 400	22 700
Västmanland	8	249 200	20 200
Västra Götaland	9	1547 300	132 500
Örebro	8	276 100	23 000
Östergötland	8	420 800	31 800

출처: Folkbildningsråden 2008, 32쪽.

또 한가지 특징중의 하나로 작은 지역일수록 동아리 참여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위에서 발견된 농촌지역일수록 동아리 참여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주민수가 10000명이하인 지역커뮤니티에서는 참여비율이 높게는 25%, 낮게는 23%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즉 지역주민의 4명에 한명꼴로 동아리에 참여함으로써 지역 주민간의 유대감과 결속관계를 넓혀가는 성향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유의한 발견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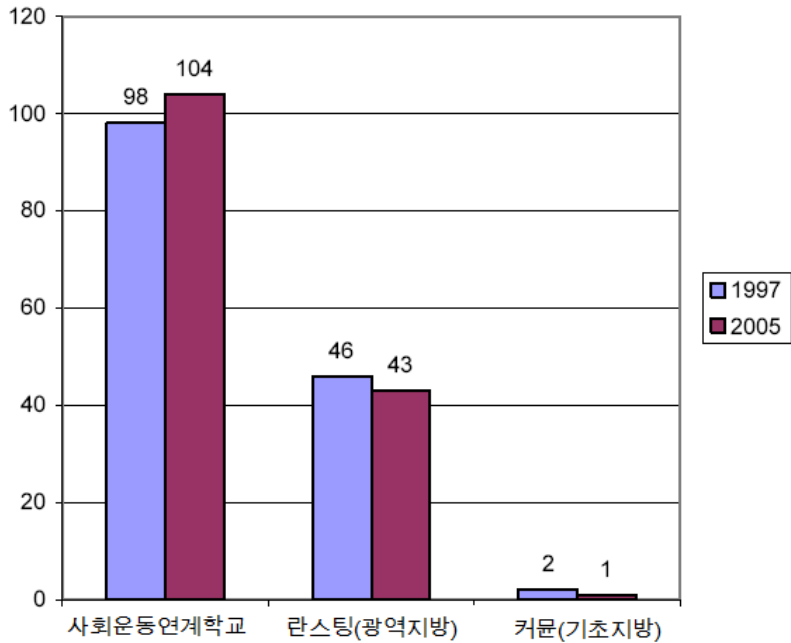
표 5. 기초자치단체별 학습동아리의 참여자수 (2008)

커뮤니티	비율	인구수	참가자
Åsele	25	3 265	814
Norsjö	24	4 380	1 047
Malå	23	3 338	1 544
Storuman	23	6 383	764
Arvidsjaur	23	6 751	1 471

출처: Folkbildningsråden 2008, 33쪽.

시민교육기관으로서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폴크훅스쿨라(Folkhögskola)는 성인고등교육기관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성인반, 대학교진학을 위한 성인반,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계통의 특화교육 등 성인학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868년 처음으로 세운 세학교를 시작으로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불기시작한 음주운동, 노동운동, 여성 참정권운동, 종교자유운동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운동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성인고등교육기관인 폴크훅스쿨라가 빠르게 정착되었다. 2010년 현재 전국적으로 150개의 학교가 설립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전국적으로 대도시(31%), 중소도시(18%), 그리고 농촌지역(51%) 등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 그리고 문화, 예술, 체육, 여가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국민들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아 국민의 지식, 기술, 여가에 대한 관심을 충족시켜주는 중요한 시민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농촌, 임어촌의 작은 마을에 고등성인교육기관이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운영단체에 따른 폴크혹스쿨라의 구분



출처: Regerings Proposition 2005/06:192, 13쪽. 그러나 2010년 기준으로 2개학교가 더 늘어 150개가 설립되었다.

운영단체에 따른 구분에서 보듯이 성인고등교육기관의 2/3가 사회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학교를 설립한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성인교육의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가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만큼 사회운동은 스웨덴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1800년대말, 1900년대 초에 일기시작한 노동운동, 농촌운동, 시민의식개혁의 운동이 여전히 국민들의 사회의식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 학생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2005년 현재까지 15만명에 이르고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때 1990년초 20만명까지 늘어난 적이 있었지만 당시는 유동성위기와 대량실업사태로 인한 일시적 증가현상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이후 줄었다기 보다는 원래의 수준으로 원상복귀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Regerings

Proposition 2005/06:192, 1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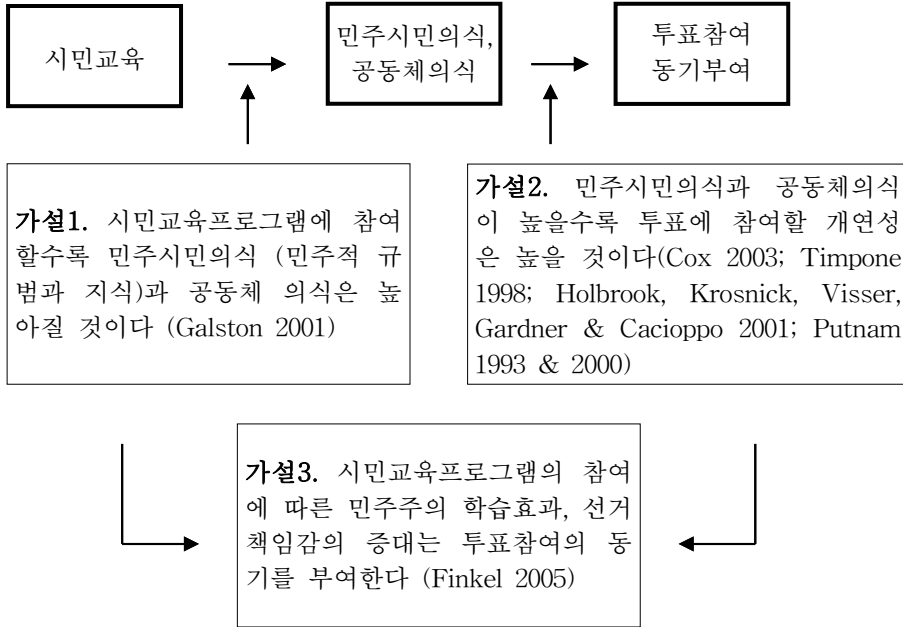
4.2. 시민교육과 투표율

시민교육의 중요한 의미로 시민들의 지식수준이 결국 시민의 영향력과 민주적 역량을 증진시키는 주요 수단이 된다는데 있다 (SOU 2004:51, 30 쪽).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지식은 비판적 시각을 갖게하고, 나아가 사회변화를 위한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지향한다는 가설로 합리논자들이 주장하는 기회비용보다 기회수익이 더 높아 참여를 유발한다는 주장과 유사하다. 이같은 가설이 뒤바침되기 위해서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열려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의식화, 조직화의 단계가 필수라 할 수 있다.

스웨덴 동아리활동에 참가한 국민 중 10800명을 추출하여 2008년 실시된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시민교육기관의 동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된 동기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목적”을 지적한 경우가 73퍼센트에 이르고, “관심있는 분야의 지식습득과 자기발전을 위한 목적”이라고 답한 경우가 68퍼센트, “새로운 사람을 만날 목적”을 지적한 비율이 52퍼센트에 이른다(Andersson, Larson and Lindgren 2008: 41). 이는 결국 자신과 유사한 사회적 관심과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투표율제고는 국민의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인식, 규범, 공동체의식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연구가설과 함께 시민교육이 국민의 민주주의 가치와 공동체 의식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일 것이라는 기본가설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위 두가지 가설과 이를 혼합한 제3의 가설에 바탕을 둔 이론적 구성은 다음의 그림 5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언급된 세계의 가설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는 서베이데이터나 혹은 시민교육에 참가한 사람과 참가하지 않은 사람간의 통제를 통한 실험방법, 혹은 질적연구와 병행한 정량적 연구방법이 동원되어야 가능한 작업이다.

그림 5. 시민교육, 민주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형성과 투표율



볼링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어떤 경로를 통해 민주주의의 작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퍼트남(Robert Putnam) 논의의 연장선상으로 시민교육의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학습효과는 곧 민주시민으로서 역량과 참여의 동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볼 때, 스웨덴 국민의 폭넓은 시민사회운동과 시민교육의 참여가 높은 투표율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스웨덴의 시민사회 운동의 일환인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이 매년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를 상회하는 190만명에 이르며 이들이 고등 성인교육기관과 시민교육단체에서 제공하는 동아리 활동, 세미나, 학술회의, 문화행사 등을 통해 민주주의 학습을 체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시민교육의 참여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뢰(Trust), 관용(Tolerance), 권리(Right), 책임 (Responsibility), 의무 (Duty)와 같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습득하게 되는지의 메카니즘, 그리고 이같은 변수들이 어떻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상관관

계와 인과관계 등의 규명을 위해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이론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청소년들의 투표이탈 현상에 대한 해결책도 결국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책임있는 시민으로서의 민주주의의 고취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하는 바가 크다 (Galston 2001). 초, 중, 고등학교의 사회과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등의 학내 및 학외 동아리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스웨덴 시민교육기관에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13-24세 청소년의 비율이 16.5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학교 민주주의 교육 뿐만이 아니라 시민교육을 통한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습득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점에서 투표율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Andersson, Larson and Lindgren 2008: 33).

이를 종합해 보면 시민교육은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Lifelong Learning)의 틀속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민주주의 교육의 목표와 내용, 운영주체, 국가와 시민단체의 관계와 역할구분, 미디어를 통한 시민교육 등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체계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 불 때 스웨덴 나아가 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모델은 하나의 좋은 연구대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나오는 글

투표율의 급격한 저하는 민주주의 작동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구가해 온 나라든, 민주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든 관계없이 투표율 저하의 원인은 주로 유권자들의 현 정치체제의 불만이나 혐오, 정치적 무관심, 선거정보 혹은 지식의 부족, 대량 실업사태 등 민주주의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내재해 있기 때문에 체계적 원인규명을 통한 투표율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정향의 삶의 행태 또한 투표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상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의 질의 향상 등의 환경적 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스웨덴의 예에서 보았듯이 시민사회의 일환인 시민교육과 학교교육을 포괄적으로 내포하는 평생교육은 제도적 신뢰와 효능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통한 민주주의의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투표참여의 기본적 환경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론구축을 위해 세계적 자료축척과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Abramson, P. R., & Aldrich, J. H. 1982. "The decline of electoral participation in Americ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502-521.
- Acock, A., Clarke, H. D., & Stewart, M. C.. 1985. "A new model for old measures: A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of political efficacy." *Journal of Politics* 47:1062-1084.
- Andersson, Eva, Monica Larson and Lena Lindgren. 2008. *Studiecirkeldeltagare 2008: En studie om deltagare i studieforbundens studiecirkelverksamhet.* Stockholm: Folkbildningsrådet.
- Ansolabehere, S., & Iyengar, S. 1995. *Going negative: How attack ads shrink and polarize the electorate.* New York: Free Press.
- Bakvis, Herman (Ed.). 1991. *Voter Turnout in Canada.* Toronto & Oxford: Dundurn Press.
- Beck, Paul Allen and Kent M. Jennings. 1991. "Family Traditions, Political periods, and the Development of Partisan Orientations." *The Journal of Politics* 53:742-763.
- Bennett, J. T., & Orzechowski, W. P. 1983. "The voting-behavior of bureaucrats.some empiricalevidence." *Public Choice* 41:271-283.
- Björklund, Anders, Per-Anders Edin, and Alan Krueger. 2004. "Education, equality, and efficiency - An analysis Swedish school reforms during the 1900s." Report 2004:1.
- Blais, André, and Stéphane Dion. 1990. "Electoral Systems and the Consolidation of New Democracies." i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Southern Europe, Latin America and Southeast Asia*, edited by Diane Ethier. London: Macmillan.
- Bobo, L., & Gilliam, F. D., Jr. 1990. "Race,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and black empower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377-393.

- Brace, K. 1995. "Minority turnout and the creation of majority-minority districts." *American Politics Research* 23:190-203.
- Caldeira, G. A., & Patterson, S. C. 1982. "Contextual influences on participation in U.S. state legislative election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7:359-38.
- Campbell, A.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397-418.
- Choe, Yonhyok. 1997. *How to Manage Free and Fair Elections: A Comparison of Korea, Sweden and the United Kingdom*. Göteborg: Göteborg University.
- Choe, Yonhyok. 2004. *Valsystem och den representativa demokratin*. Malmö: Liber.
- Clinton, J. D., & Lapinski, J. S. 2004. "Targeted" advertising and voter turnout: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Journal of Politics* 66:69-96.
- Corey, E. C., & Garand, J. C. 2002. "Are government employees more likely to vote?: An analysis of turnout in the 1996 U.S. national election." *Public Choice* 111:259-283.
- Cover, A. D. 1985. "Surge and decline in congressional elections." *Western Political Quarterly* 38:606-619.
- Cox, G. W., & Munger, M. C. 1989. "Closeness, expenditures, and turnout in the 1982 U.S. house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217-231.
- Cox, M. 2003. "When trust matters: Explaining differences in voter turnout."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1:757-770.
- Craig, S. C., & Maggiotto, M. A. 1982. "Measuring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8:85-109.
- Crewe, Ivor. 1981. "Electoral Participation." in *Democracy at the Polls: A Comparative Study of Competitive National Elections*, edited by David Butler, Penniman, Howard R., and Ranney, Austin. Washington and London: AEI.
- Dahl, R. 1998. *On Democracy*. Harrisonburg, Virginia: Yale University.

- Delli Carpini, Michael X. and Scott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Denny, Kevin and Doyle, Orla. 2009. "Does Voting History Matter ? Analysing Persistence in Turnout." *Amer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3:17-35.
- Denver, David and Gordon Hands. 1990. "Does Studying Politics Make a Difference? The Political Knowledge,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School Student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63-279.
- Dettrey, Bryan J. and Schwindt-Bayer, Leslie A. 2009. "Voter Turnout in Presidential Democraci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2:1317-1338.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Endersby, James W. and Kriekhaus, Jonathan T. 2008. "Turnout around the globe: The influence of electoral institutions on national voter participation, 1972-2000." *Electoral Studies* 27:601-610.
- Ferejohn, J. A., & Fiorina, M. P. 1974. "The paradox of not voting: A decision theoretic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525-536.
- Filer, J. E., Kenny, L. W., & Morton, R. B. 1993. "Redistribution, income, and voting."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1), 63-87.
- Fisher, Justin and Denver, David. 2009. "Evaluating the Electoral Effects of Traditional and Modern Modes of Constituency Campaigning in Britain 1992-2005." *Parliamentary Affairs* 62:196-210.
- Folkbildningsrådet 2008. *Årsredovisning med verksamhetsberättelse*. Stockholm: Folkbildningsrådet.
- Franklin, Mark N. 1996. "Electoral Participation." in *Comparing*

- Democracies: Elections and Voting in Global Perspective*, edited by Lawrence LeDuc, and Niemi, Richard G and Pippa Norris. London: Sage.
- Franklin, Mark N. 2004. *Voter Turnout and the Dynamics of Electoral Competition in Established Democracies Since 194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eedman, P., & Goldstein, K. 1999. "Measuring media exposure and the effects of negative campaign ad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189-1208.
- Galbraith, James K. and Hale, J. Travis. 2008. "State Income Inequality and Presidential Election Turnout and Outcomes." *Social Science Quarterly* 89:887-901.
- Galston, Willaim A.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Political Science* 4:217-234.
- Gant, M. M. 1983. "Citizen uncertainty and turnout in the 1980 presidential campaign." *Political Behavior* 5:257-275.
- Gerber, A. S., & Green, D. P. 2000. "The effects of canvassing, telephone calls, and direct mail on voter turnout: A field experi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4:653-663.
- Gerber, A. S., & Green, D. P. 2005. "Correction to Gerber and Green (2000), replication of disputed findings, and reply to Imai."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301-313.
- Gerber, A. S., Green, D. P., & Shachar, R. 2003. "Voting may be habit-forming: Evidence from a randomized field experi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7:540-550.
- Gimpel, J., Dyck, J., & Shaw, D. 2004. "Registrants, voters, and turnout variability across neighborhoods." *Political Behavior* 26:343-375.
- Gimpel, J. G., & Schuknecht, J. E. 2003.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accessibility of the ballot box." *Political Geography* 22:471-488.
- Goldstein, K., & Freedman, P. 2002. "Campaign advertising and voter

- turnout: New evidence for a stimulation effect.” *Journal of Politics* 64:721-740.
- Green, D. P., & Gerber, A. S. 2004. *Get ou the vote: What works?*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 Green, D. P., Gerber, A. S., & Nickerson, D. W. 2003. “Getting out the vote in local elections: Results from six door-to-door canvassing experiments.” *Journal of Politics* 65:1083-1096.
- Helliwell, John F. 2007. “Education and Social Capital.” *Eastern Economic Journal* 33:1-19.
- Hetherington, M. J. 1999. “The effect of political trust on the presidential vote, 1968-9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311-326.
- Highton, B. 2000. “Residential mobility, community mobility, and elector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22:109-120.
- Holbrook, A. L., Krosnick, J. A., Visser, P. S., Gardner, W. L., & Cacioppo, J. T. 2001. “Attitudes toward presidential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Initial optimism, inertial first impressions, and a focus on flaw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5:930-950.
- Huckfeldt, R. R. 1979.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neighborhood social contex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3:579-592.
- IDEA. 2002. *A Handbook of Voter Turnout in the World*.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 IDEA. 2004. *A Handbook of Voter Turnout in Western Europe since 1945*.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 Jackman, Robert W.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Voter Turnout in Industrial Democrac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405-23.
- Jankowski, T. B., & Strate, J. M. 1995. “Modes of participation over the adult life span.” *Political Behavior* 17:89-106.
- Jenssen, Anders Todal. 2009. “Does Public Broadcasting Make a

- Difference? Political Knowledge and Electoral Campaigns on Television.”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3 2:247-271.
- John, Peter and Zoë Morris. 2004. “What are the origins of social capital? Results from a panel survey of young people.” *Journal of Election, Public Opinion & Parties* 14:94.
- Kelley, S., Jr., Ayres, R. E., & Bowen, W. G. 1967. “Registration and voting: Putting first things firs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359-379.
- Kim, J., Petrocik, J. R., & Enokson, S. N. 1975. “Voter turnout among the American states: Systemic and individual component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107-123.
- Kingston, P. W., & Finkel, S. E. 1987. “Is there a marriage gap in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57-64.
- La Due Lake, R., & Huckfeldt, R. 1998. “Social capital, social network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Psychology* 19:567-584.
- Lacy, D., & Burden, B. C. (1999). “The vote-stealing and turnout effects of Ross Perot in the 1992 U.S. presidential elec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1), 233 - 255.
- Larcinese, Valentino. 2009. “Information Acquisition, Ideology and Turnout: Theory and evidence from Britai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1:237-276.
- Lau, R. R., & Pomper, G. M. 2001. “Effects of negative campaigning on turnout in U.S. senate elections, 1988.1998.” *Journal of Politics* 63:804-819.
- Leighley, J. E., & Vedlitz, A. 1999. “Race, ethnici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Competing models and contrasting explanations.” *Journal of Politics* 61:1092-1114.
- Levi, M., & Stoker, L. 2000. “Political trust and trustworthines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475-507.
- Lopez, Mark Hugo. 2004. *Volunteering Among Young People*. College Park, MD.: CIRCLE.
- Lyons, W., & Alexander, R. 2000. “A tale of two electorates:

- Generational replacement and the decline of voting in presidential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62:1014-1034.
- Matsusaka, J. G. E. 1993. "Election closeness and voter turnout: Evidence from California ballot propositions." *Public Choice* 76:313-334.
- McAllister, Ian. 1998. "Civic Education and Political Knowledge in Australia."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3:7-23.
- McDonald, Michael P. and Samuel L. Popkin. 2001. "The Myth of the Vanishing Vot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5:963-974.
- Matthews, D. R., & Prothro, J.W. 1966. *Negroes and the new southern politics*.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 Mendelsohn, Matthew & Cutler, Fred. 2000. "The Effect of Referendums on Democratic Citizens: Information, Politicization, Efficacy and Toleran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0:685-98.
- Michelson, M. R. 2003. "Getting out the Latino vote: How door-to-door canvassing influences voter turnout in rural central California." *Political Behavior* 25:247-263.
- Miller, W. E. 1980. "Disinterest, disaffection, and participation in presidential politics." *Political Behavior* 2 :7-32.
- Miller, W. E. 1992a. "Generational changes and party iden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14:333-352.
- Miller, W. E. 1992b. "The puzzle transformed: Explaining declining turnout." *Political Behavior* 14:1-43.
- Miller, A. H., Gurin, P., Gurin, G., & Malanchuk, O. 1981. "Group consciousnes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494-511.
- Miller, W. E., & Shanks, J. M. 1996. *The New American voter*. Cambridge, MA,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 Min, Y. 2004. "News coverage of negative political campaigns: An experiment of negative campaign effects on turnout and

- candidate preferenc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9:95-111.
- Mitchell, G. E. & Wlezien, C. 1995. “The impact of legal constraints on voter registration, turnout, and the composition of the American electorate.” *Political Behavior* 17:179-202.
- Nagler, J. 1991. “The effect of registration laws and education on U.S.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1393-1405.
- Nie, N. H., Junn, J., & Stehlik-Barry, K.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Norris, Pippa. 2003. *Electoral Engineering: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scarsson, Henrik. 1998. *Den svenska partirynden. Väljarnas uppfattningar av konfliktstrukturen i partisystemet 1956-1996*. Avhandling. Göteborgs universitet: Statsvetenskapliga institutionen.
- Pacheco, J., & Plutzer, E. 2008. “Political participation and cumulative disadvantage: The impact of economic and social hardship on young citizens.” *Journal of Social Issues* 64.
- Panning, W. H. 1982. “Uncertainty and political participation.” *Political Behavior* 4:69-81.
- Patterson, S. C., & Caldeira, G. A. 1983. “Getting out the vote: Participation in gubernator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7:675-689.
- Petrocik, J. R., & Shaw, D. 1991. “Non-voting in America: Attitudes in context.” in *Political participation and American democracy*, edited by W. Crotty. New York: Greenwood.
- Powell, Bingham Jr G.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17-43.
- Powell, Bingham Jr G. 2000.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Yale

- University Press.
- Print, Murray. 2007. "Citizenship education and youth participation in democrac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55:325-345.
- Plutzer, Eric. 2002. "Becoming a Habitual Voter: Inertia, Resources, and Growth in Young Adulthood."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6:41-56.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Corp.
- Regeringens proposition 2005/06:192 *Lära, växa, förändra*.
- Riker, W. H., & Ordeshook, P. C.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25-42.
- Rose, Richard. 1997. "Evaluating Election Turnout." *Voter Turnout from 1945 to 1997: a Global Report on Political Participation*:35-47.
- Rosenstone, S. J., & Hansen, J. M.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 Rothstein, Bo. 2001. "Social Capital in the Social Democratic Welfare State." *Politics and Society* 29:207.
- Rothstein, Bo & Eric M. Ulsander. 2005. "All for All: Equality and Social Trust." *LSE Health and Social Care Discussion Paper*.
- Sandell, J., & Plutzer, E. 2005. "Families, divorce and voter turnout in the US." *Political Behavior* 27:133-162.
- Schlozman, K. L., Burns, N., & Verba, S. 1999. "'What happened at work today?': A multistage model of gender, employ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Politics* 61:29-53.
- Shachar, R., & Nalebuff, B. 1999. "Follow the leader: Theory and evid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525-547.
- Shields, T. G., & Goidel, R. K. 1997. "Participation rates, socioeconomic class biase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A crossvalidation."

-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683-691.
- Sorbom, Adrienne. 2002. *Vart tar politiken vagen? Om individualisering, reflexivitet och gorbarhet i det politiska engagemanget*.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 SOU 2004:51. *Vem får vara med? En belysning av folkbildningens relation till icke deltagarna*.
- Squire, P., Wolfinger, R. E., & Glass, D. P. 1987. "Residential mobility and voter turnou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1:45-66.
- Stoker, L., & Jennings, M. K. 1995. "Life-cycle transitions and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ase of marriag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9:421-433.
- Strate, J. M., Parrish, C. J., Elder, C. D., & Ford, C. 1989. "Life span civic development and voting particip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443-464.
- Tagore, Rabindranath and Sen, Amartya. 2009. *Boyhood Days*. London:HesperusPressLtd.
- Tate, K. 1991. "Black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1984 and 1988 presidenti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1159-1176.
- Teixeira, R.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Tenn, S. 2007. "The effect of education on voter turnout." *Political Analysis* 15:446-464.
- Timpone, R. J. 1998. "Structure, behavior, and voter turnout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2:145-158.
- Tolleson-Rinehart, S. 1992. *Gender consciousness and politics*. New York: Routledge.
- Turner, M. J., Shields, T. G., & Sharp, D. 2001. "Changes and continuities in the determinants of older adults' voter turnout 1952.1996." *The Gerontologist* 41:805-818.
- Uhlaner, C. J., Cain, B. E., & Kiewiet, D. R. 1989. "Political

- participation of ethnic minorities in the 1980s.” *Political Behavior* 11:195-231.
- Verba, Sidney and Nie, Norma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Harper & Row.
- Verba, Sidney, Lehman Schlozman, and Henry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von Essen, Johan och Pelle Aberg. 2009. *Folkrorelseanknytningar och marknadsrelationer: Studieforbunden och deras grundarorganisationer, medlemsorganisationer och samverkansorganisationer*. Stockholm: Folkbildningsrådet.
- Wattenberg, M. P., & Brians, C. L. 1999. “Negative campaign advertising: Demobilizer or mobilize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891-899.
- Wolfinger, Raymond E, and Steven J Rosenstone.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 E., Glass, D. P., & Squire, P. 1990. “Predictors of electoral turnout: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olicy Studies Review* 9:551-574.
- Wolfinger, R. E., & Rosenstone, S. J. 199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New York: Macmillan Press.
- Wright, G. C., Jr. 1976. “Community structure and voting in the south.” *Public Opinion Quarterly* 40:201-215.
- Örval, Richard. 2009. *Kan valdeltagande öka?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는가?)*. Eskilstuna: SCB.

인터넷

여성시민사회참여비율:

<http://www.sektor3.se/wp-content/uploads/2010/02/Sektor-33.pdf>. 방문.

Ekonomifakta:

<http://www.ekonomifakta.se/sv/Fakta/Arbetsmarknad/Arbetsloshet/Ungdomsarbetsloshet-internationellt/?from=&to=&columns=,1,21,6,2010-03-02>
방문.

IDEA Voter Turnout website: <http://www.idea.int/vt/index.cfm>

<Abstract>

Motivation Factors for Voting and Citizens' Education

Yonhyok Choe
Södertörns University

Voting and participation are the key components of democracy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ere are many motivation factors for voting and citizens' education is one of important motivation factors. In Sweden Studiesfubund and Folkhogskola are major institutions for citizens' education and democracy. They the citizens' social commitment is considerable, particularly among the young. I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participation in elections is still high. The number of youth organisations is growing. A large part of the population is still active in popular movements and other volunteer organisations.

Key Words: voting, citizens' education, democracy

최연혁 (Yonhyok Choe)

스웨덴 쇠데르턴 대학 정치학과 교수

전화: +46-70-4411971

주소: Box 4101, 141 04 Huddinge, Sweden

email: yonhyok.choe@sh.se

접수일자: 2010. 8. 20

게재결정: 2010. 8. 28